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올 황금 종려상 지존 가린다

제59회 칸 영화제 오늘 개막... 개막작 '다빈치 코드'

올해로 59회를 맞는 칸 국제영화제가 17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칸에서 열려...

리아 나니 모레티 감독의 '악어', 스페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블베르' 등 유럽 거장 감독들의 작품이 장편 경쟁부문에 포함됐다...

한국 영화 부문 진출작이 단 한 편도 없어 아쉬움이 남지만, 한동안 아시아권 영화에 관심을 보였던 칸 영화제가 유럽 영화에 새삼 시선을 돌린 것이 눈에 띈다.

올해 칸 영화제의 특징은 유럽영화의 강세를 들 수 있다.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올해는 영화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유럽에 주목했다"면서 "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핀란드·리투아니아 영화 등이 다시 부상했다"고 밝혔다.

개·폐막식 사하는 '오션스 11' '나 마애 잃어봐'로 유명한 프랑스 배우 뱁상 카셀이 맡는다.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개막식에 등장할 그의 아내 모니카 벨루치와 함께 나란히 단상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 영화는 올해 약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윤종빈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가 초청됐고, 봉준호 감독의 신작 '괴물'은 '감독주간'에 진출했다.

황금종려상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장편 경쟁부문에 올해 20편이 올랐다. 영국의 거장 켄 로치의 '보리밭에 부는 바람', 이탈리아 나니 모레티 감독의 '악어', 스페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블베르' 등 유럽 거장 감독들의 작품이 장편 경쟁부문에 포함됐다...

올해 칸 영화제의 특징은 유럽영화의 강세를 들 수 있다.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올해는 영화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유럽에 주목했다"면서 "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핀란드·리투아니아 영화 등이 다시 부상했다"고 밝혔다.



제59회 칸 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장편부에 경쟁 초청됐지만 올해 한국 작품은 공식 경쟁부문에 한 작품도 진출하지 못했다. 다만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윤종빈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가 초청됐고, 봉준호 감독의 신작 '괴물'은 '감독주간'에 진출했다.

한편 영화제 기간에 최민식을 비롯한 한국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Living TV 광고: 영포인트탐사 피싱투어(오후 3시). 컴퓨터를 귀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보청기' 국제보청기가 자연의 소리를 들려 드립니다.

케이블·위성TV 17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SBS, MBC, EBS, K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